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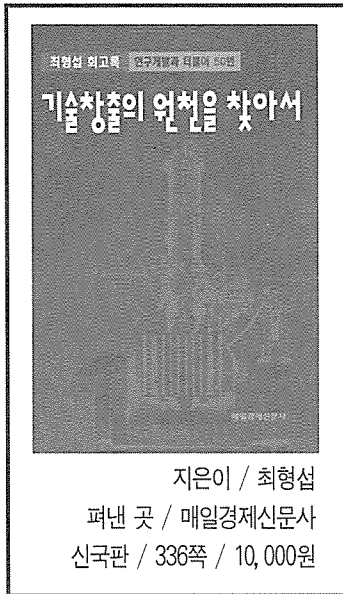
최형섭 회고록, 연구개발과 더불어 50년 기술창출의 원천을 찾아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남다른 기여를 하였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 중흥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독보적인 공헌을 한 저자의 80평생 중 50년간의 연구개발과 국가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집행에서의 귀중한 경험들을 담은 이 저서는 저자의 한국 과학기술에 쏟은 남다른 애정과 과학기술을 통해 국가에 헌신 봉사하였던 인생역정 그리고 생활관 등을 진솔하게 기술하고 있다.

1971년부터 1978년까지 7년6개월 동안 최장수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개발

이론의 모델을 제시하고 그 기초를 닦았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연구개발의 주역은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의 과학기술자들과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결국 과학을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과학기술자의 품위와 자세에 달려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과학기술자들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할 때 비로소 그 나라 과학기술이 제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기술자는 명언거장이 나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데, 과학자는 물질적인 대가보다는 학구적인 업적에 치중하는 훌륭한 연구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아울러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와세다대학에서 수학, 북미에서의 학구생활, 여명기의 연구개발 선도, 공업화를 뒷받침하는 응용연구 등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정책과 전략의 도출, 특정 전략산업 발전방안 모색, 금속연구의 흐름과 전망, 이름있는 연구소를 돌아보면서, 연구개발기구의 형태와 특징, 지적공동체의 형성 등 총 10장으로 이루어져 있



다.

저자는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대략 네가지로 집약하고 있다. 첫째로 전문분야에서의 학구적 연구생활, 다음에는 몇개 연구소 경영자로서의 연구관리업무, 그리고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실천, 마지막으로 국제과학기술협력과 관련된 일들이다.

따라서 이 책의 전반부에서는 대학·대학원 시절에 공부하던 일, 학위를 마치고 미국·캐나다에서의 학구생활, 한국에 돌아와서 원자력연구소·금속연료종합연구소·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등 연구소에서 본격적으로

전문분야 연구를 하면서 후학들을 지도하던 일들을 학술논문의 내용도 일부 언급해가면서 간추렸고 후반부에서는 과학정책·기술개발전략 및 연구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이룩된 일들을 담고 있다.

한편 저자가 유심히 보아온 금속연구의 과거·현재의 흐름과 전망을 정리하여 그 개요를 실었으며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본 연구개발기구나 연구단지, 그리고 일부러 찾아다닌 이름있는 연구소들을 회상하고 있다. 연구개발투자는 장기투자이지만 그 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끄는 근본요소이며 연구개발투자의 열매는 단순히 이러한 유형적인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지식과 기술은 국가발전의 저력 배양에 무형의 보탬을 주고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다. 평소에 과학기술자들의 국가관, 애국심의 확립 그리고 사회적, 윤리적인 책임을 주창한 저자의 신념에 가득찬 뜻을 곳곳에서 읽을 수 있다. 과학기술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물론 대학생,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읽혀지기를 바란다. ㉞

朴澤奎(건국대 상허기념도서관 관장)